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60.5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달성

- 도착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9.5억 달러 -
- 새정부 출범 후 신뢰 회복 및 APEC 정상회의 계기 투자유치 주효 -

2025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하였다.

*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추이

- 신고기준(억 달러) : ('22) 304.4 → ('23) 327.1 → ('24) 345.7 → ('25) 360.5
- 도착기준(억 달러) : ('22) 182.2 → ('23) 199.9 → ('24) 154.3 → ('25) 179.5

이러한 실적은 '25년 상반기 투자 급감($\Delta 14.6\%$)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질 좋은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美)AWS(AI데이터센터), (美)애플테크놀로지(반도체 후공정), (佛)에어리퀴드(반도체 공정가스), (獨)싸토리우스(바이오원부자재) 등

세부적인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유형별]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하였다. 인수합병인 ▲M&A는 7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하였으나, 지난 3분기 54.0%의 급감에서 벗어나 감소세가 대폭 축소되었다.

[업종별] ▲제조업은 15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다.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강화 노력으로 해석된다. 화공(58.1억 달러, +99.5%), 금속(27.4억 달러, 272.2%) 등에서 증가하였고, 전기·전자(35.9억 달러, △31.6%), 기계장비·의료정밀(8.5억 달러, △63.7%) 등에서 감소하였다.

한편, ▲서비스업은 19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다. AI 데이터 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통(29.3억 달러, +71.0%), 정보통신(23.4억 달러, +9.2%),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19.7억 달러, +43.6%) 업종 위주로 증가하고, 금융·보험(74.5억 달러, △10.6%) 등에서 감소하였다.

[국가별] ▲미국은 금속, 유통, 정보통신 업종 중심으로 투자유입이 확대되며 97.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86.6% 증가하였다. ▲EU의 경우, 화공,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며 69.2억 달러(+35.7%)를 기록하였다. 반면, ▲일본은 44.0억 달러로 28.1% 감소하였고, ▲중국도 35.9억 달러를 기록하며 38.0%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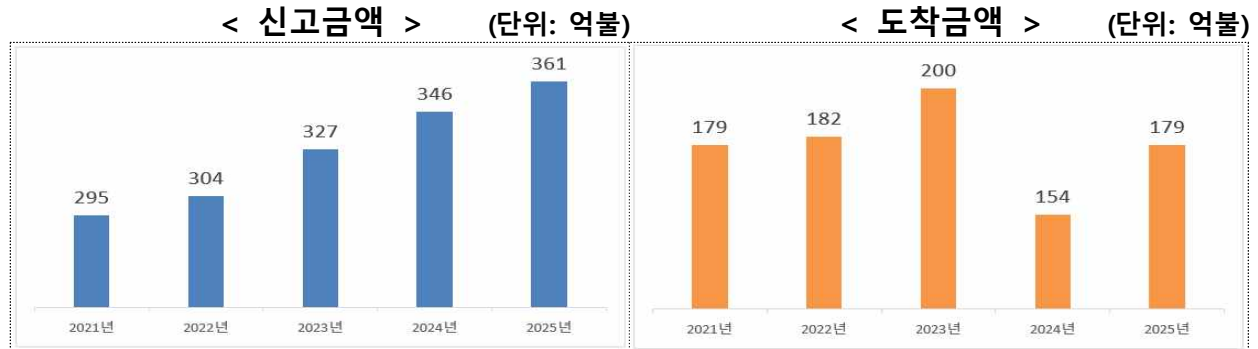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최대실적 달성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 2026년에도 지역 발전과 연계된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INSC)과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 *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INSC)을 따름
- 본 자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잠정적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산업통상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 2026년 1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026년 4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4080)
	투자유치과	담당자	사무관	김해원 (044-203-4086)

I. 총괄

① (실적) **신고 360.5억불**(전년대비 +4.3%), **도착 179.5억불**(+16.3%)



② (신고) AI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그린필드 투자 유입 확대되며 **역대 최고실적 달성**

○ (유형) 그린필드 역대 1위 달성, M&A 감소세 축소

* 그린필드 285.9억불(+7.1%), M&A 74.6억불(△5.1%)

○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증가

* 제조업 157.7억불(+8.8%), 서비스업 190.5억불(+6.8%)

○ (국가) 미국·EU發 투자 증가, 일본·중국發 투자 감소

* 美 97.7억불(+86.6%), EU 69.2억불(+35.7%), 日 44.0억불(△28.1%), 中 35.9억불(△38.0%)

③ (도착) 기존 신고된 건들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역대 3위** 실적 기록

○ (유형) 그린필드 역대 2위 달성, M&A 감소세 축소

* 그린필드 131.2억불(+41.4%), M&A 48.3억불(△21.4%)

○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증가

* 제조업 58.8억불(+22.0%), 서비스업 115.0억불(+20.2%)

○ (국가) 미국發 투자 증가, EU·일본·중국發 투자 감소

* 美 53.7억불(+199.1%), 中 5.1억불(△1.3%), EU 31.2억불(△37.6%), 日 8.5억불(△53.2%)

II. 세부 동향

【투자신고】

1. 유형별

- (금액) 그린필드(285.9억불, +7.1%, 비중 79.3%) 증가
M&A(74.6억불, △5.1%, 비중 20.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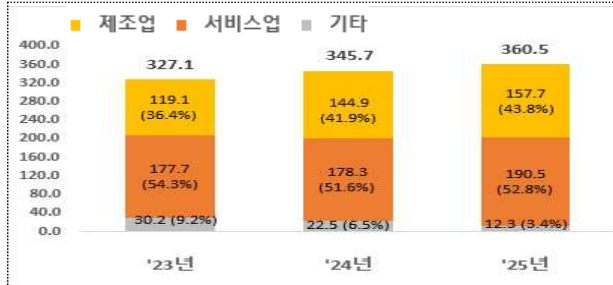


- (그린필드) 285.9억불(전년比 +7.1%)
 - 제조업(120.4억불, △8.2%) 감소, 서비스업(153.7억불, +28.4%) 증가
 - (M&A) 74.6억불(전년比 △5.1%)
 - 제조업(37.3억불, +172.9%) 증가, 서비스업(36.8억불, △37.3%) 감소
- (건수) 그린필드(3,494건, +5.0%), M&A(326건, +9.0%)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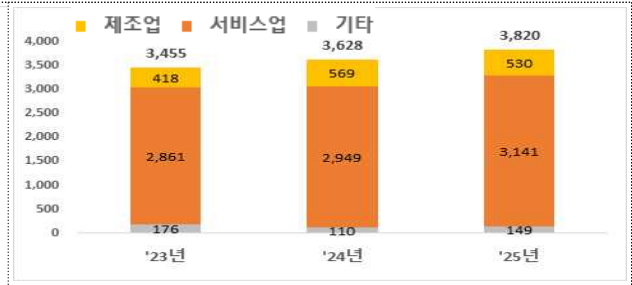
2. 업종별

- (금액) 제조업(157.7억불, +8.8%, 비중 43.8%)·서비스업(190.5억불, +6.8%, 비중 52.8%) 증가, 기타업종(12.3억불, △45.4%, 비중 3.4%) 감소
- * 기타업종 : 1차산업(농·축·수산·광업),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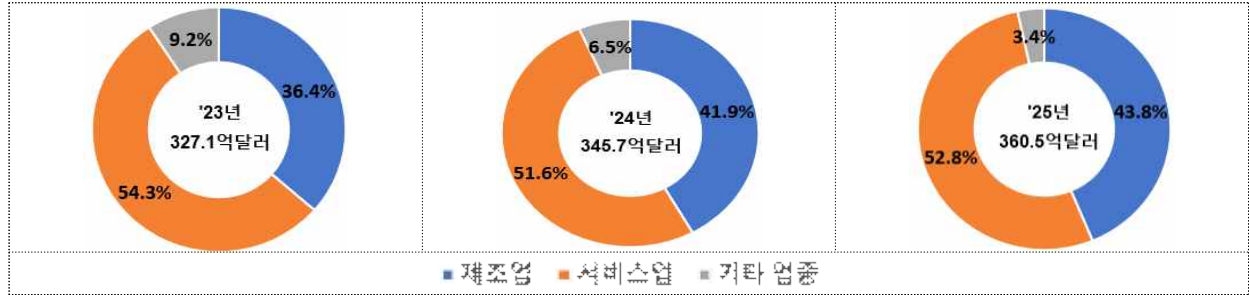
< 업종별 신고금액(단위 : 억불) >



< 업종별 신고건수(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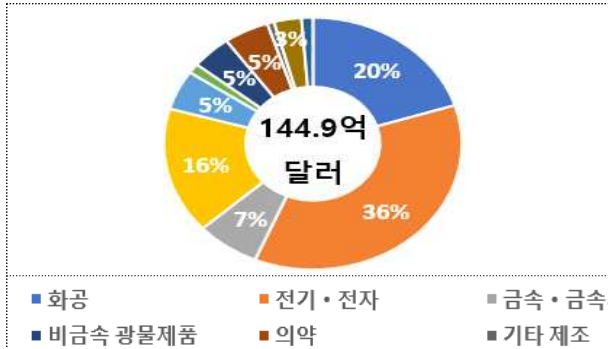


< 업종별 FDI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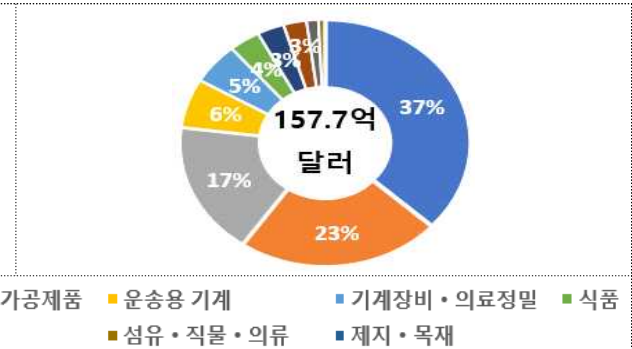


○ (제조업) 157.7억불(전년비 +8.8%, 비중 43.8%)

< '24년 신고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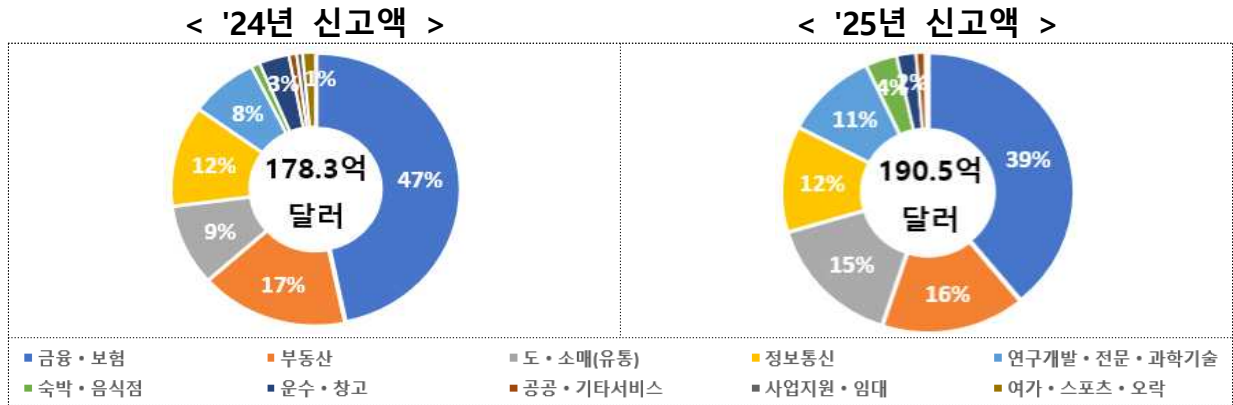
< '25년 신고액 >



- (증가업종) 화공(58.09억불, +99.5%), 금속·금속가공(27.44억불, +272.2%), 운송용 기계(10.16억불, +1.5%) 등

- (감소업종) 전기·전자(35.94억불, △31.6%), 기계장비·의료정밀(8.54억불, △63.7%), 비금속 광물제품(4.76억불, △24.9%) 등

○ (서비스업) 190.5억불(전년비 +6.8%, 비중 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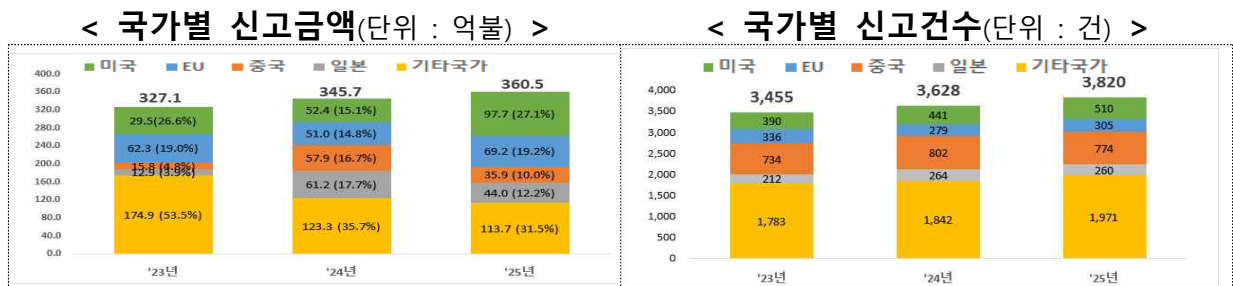
- (증가업종) 부동산(30.46억불, +2.6%), 도·소매(유통)(29.25억불, +71.0%), 정보통신(23.41억불, +9.2%) 등
- (감소업종) 금융·보험(74.45억불, △10.6%), 운수·창고(4.08억불, △32.3%), 사업지원·임대(0.48억불, △59.9%) 등

□ (건수) 서비스업(3,141건, +6.5%)·기타업종(149건, +35.5%) 증가, 제조업(530건, △6.9%) 감소

3. 국가별

(* EU : 영국 제외 27개국)

□ (금액) 미국(97.7억불, +86.6%, 비중 27.1%)·EU(69.2억불, +35.7%, 비중 19.2%) 증가, 중국(35.9억불, △38.0%, 비중 10.0%)·일본(44.0억불, △28.1%, 비중 12.2%)·기타국가(113.7억불, △7.8%, 비중 31.5%) 감소



○ (미국) 97.7억불(전년比 +86.6%, 비중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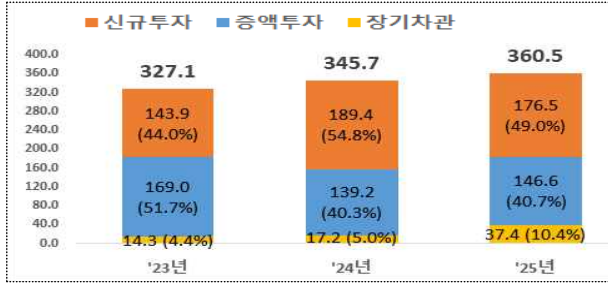
- (유형별) 그린필드(95.1억불, +102.8%), M&A(2.7억불, △51.5%)
- (업종별) 제조업(40.7억불, +146.7%), 서비스업(56.4억불, +76.3%)

- (EU) 69.2억불(전년比 +35.7%, 비중 19.2%)
 - (유형별) 그린필드(29.7억불, △13.3%), M&A(39.5억불, +136.1%)
 - (업종별) 제조업(47.0억불, +114.7%), 서비스업(17.0억불, △31.5%)
- (중국) 35.9억불(전년比 △38.0%, 비중 10.0%)
 - (유형별) 그린필드(35.7억불, △37.5%), M&A(0.1억불, △79.5%)
 - (업종별) 제조업(19.8억불, △55.7%), 서비스업(14.9억불, +17.3%)
- (일본) 44.0억불(전년比 △28.1%, 비중 12.2%)
 - (유형별) 그린필드(43.2억불, △21.9%), M&A(0.8억불, △87.1%)
 - (업종별) 제조업(38.0억불, △22.0%), 서비스업(6.0억불, △44.1%)
- (기타국가) 113.7억불(전년比 △7.8%, 비중 31.5%)
 - (유형별) 그린필드(82.2억불, +11.8%), M&A(31.5억불, △36.7%)
 - (업종별) 제조업(12.3억불, △7.3%), 서비스업(96.1억불, △1.9%)
- (건수) 미국(510건, +15.6%)·EU(305건, +9.3%)·기타국가(1,971건, +7.0%)
증가, 일본(260건, △1.5%)·중국(774건, △3.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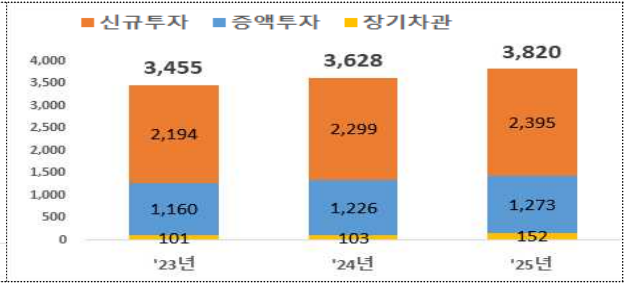
4. 자금별

- (금액) 신규투자(176.5억불, △6.8%, 비중 49.0%) 감소, 증액투자(146.6억불, +5.4%, 비중 40.7%), 장기차관(37.4억불, +117.7%, 비중 10.4%) 증가
- * 신규투자 :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
증액투자 :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장기차관 :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자금별 신고금액(단위 : 억불) >



< 자금별 신고건수(단위 : 건) >



○ (신규투자) 176.5억불(전년비 △6.8%)

- 제조업(66.9억불, △27.9%), 서비스업(107.1억불, +19.3%)

○ (증액투자) 146.6억불(전년비 +5.4%)

- 제조업(73.8억불, +72.0%), 서비스업(66.0억불, △18.4%)

□ (건수) 신규투자(2,395건, +4.2%), 증액투자(1,273건, +3.8%)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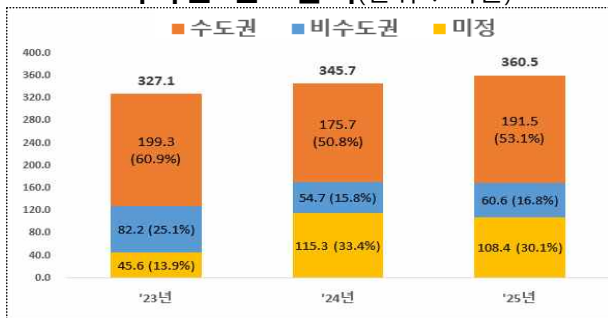
5. 지역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비수도권 : 이외 14개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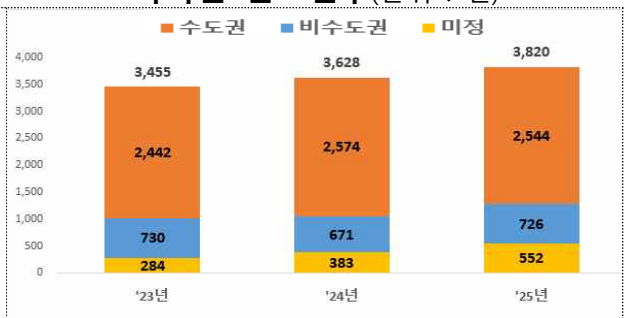
미정(108.4억불) :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금액) 수도권(191.5억불, +9.0%, 비중 53.1%)·비수도권(60.6억불, +10.8%, 비중 16.8%) 증가, 투자지역 미정(108.4억불, △6.0%, 비중 30.1%) 감소

< 지역별 신고금액(단위 : 억불) >



< 지역별 신고건수(단위 : 건) >



○ (수도권) 191.5억불(전년비 +9.0%)

- 제조업(68.2억불, +116.3%) 증가, 서비스업(119.9억불, △12.1%) 감소

* 서울(157.4억불, +21.9%), 인천(8.5억불 +23.4%), 경기(25.6억불, △35.4%)

○ (非수도권) 60.6억불(전년比 +10.8%)

- 제조업(31.0억불, △11.4%) 감소, 서비스업(22.0억불, +111.0%) 증가

* 증가 시·도 : 전남(12.72억불, +133.8%), 충북(11.02억불, +53.2%),
강원(8.31억불, +360.1%), 부산(7.97억불, +237.5%),
경남(3.20억불, +38.9%), 세종(1.25억불, +10,913.4%),

* 감소 시·도 : 충남(5.18억불, △38.1%), 경북(4.08억불, △10.3%),
울산(3.88억불, △18.1%), 대전(1.61억불, △71.3%),
대구(0.70억불, △19.4%), 전북(0.36억불, △95.4%),
광주(0.17억불, △84.8%), 제주(0.17억불, △93.5%),

□ (건수) 수도권(2,544건, △1.2%) 감소, 비수도권(726건, +8.2%) 증가

【투자도착】

1. 유형별

- (금액) 그린필드(131.2억불, +41.4%, 비중 73.1%) 증가, M&A(48.3억불, △21.4%, 비중 26.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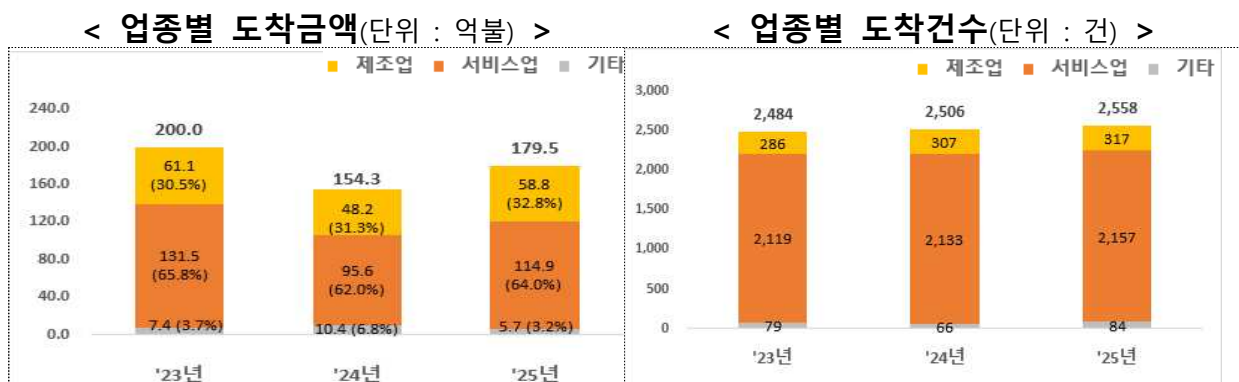


- (그린필드) 131.2억불(전년비 +41.4%)
 - 제조업(54.1억불, +45.1%), 서비스업(71.9억불, +40.2%) 모두 증가
 - (M&A) 48.3억불(전년비 △21.4%)
 - 제조업(4.7억불, △56.7%), 서비스업(43.1억불, △2.9%) 모두 감소
- (건수) 그린필드(2,364건, +1.9%), M&A(251건, +2.9%)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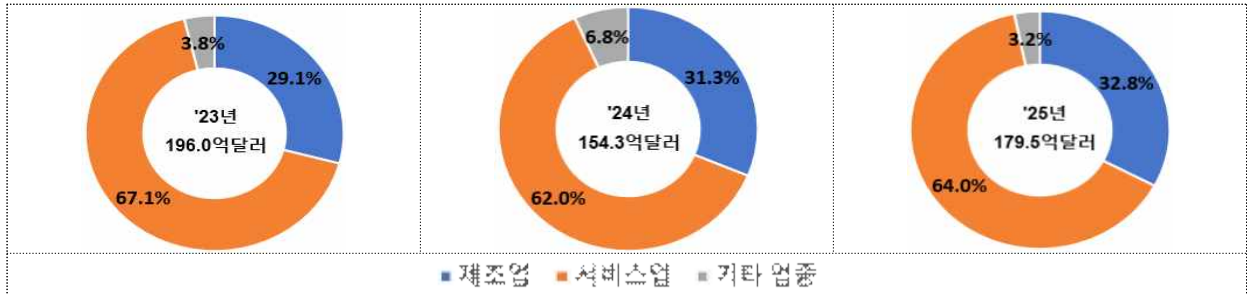
2. 업종별

- (금액) 제조업(58.8억불, +22.0%, 비중 32.8%)·서비스업(114.9억불, +20.2%, 비중 64.0%) 증가, 기타업종(5.7억불, △45.2%, 비중 3.2%) 감소

* 기타업종 : 1차산업(농·축·수산·광업),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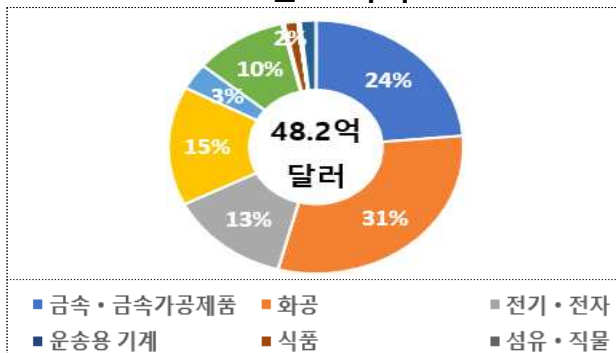


< 업종별 FDI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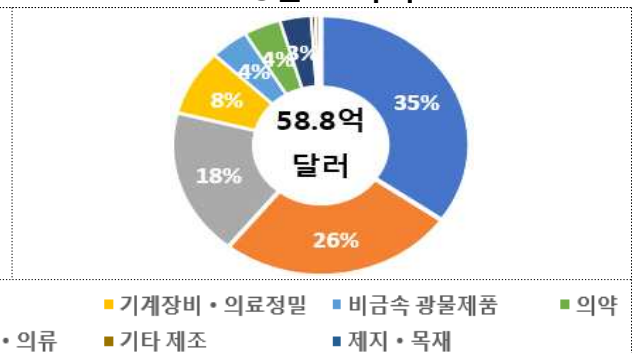


○ (제조업) 58.8억불(전년比 +22.0%, 비중 32.8%)

< '24년 도착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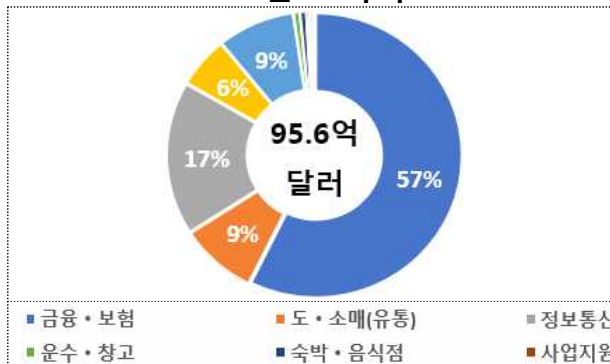
< '25년 도착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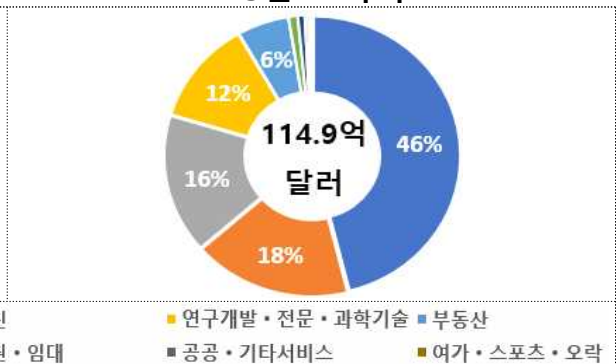
- (증가업종) 금속·금속가공(20.47억불, +16,097.9%), 화학(15.24억불, +34.0%), 운송용기계(2.01억불, +23.6%) 등
- (감소업종) 전기·전자(10.78억불, △26.9%), 기계장비·의료정밀 (4.84억불, △25.0%), 비금속 광물제품(2.47억불, △49.8%) 등

○ (서비스업) 114.9억불(전년比 +20.2%, 비중 64.0%)

< '24년 도착액 >



< '25년 도착액 >



- (증가업종) 도·소매(유통)(20.09억불, +145.0%),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13.84억불, +149.5%) 정보통신(18.56억불, +11.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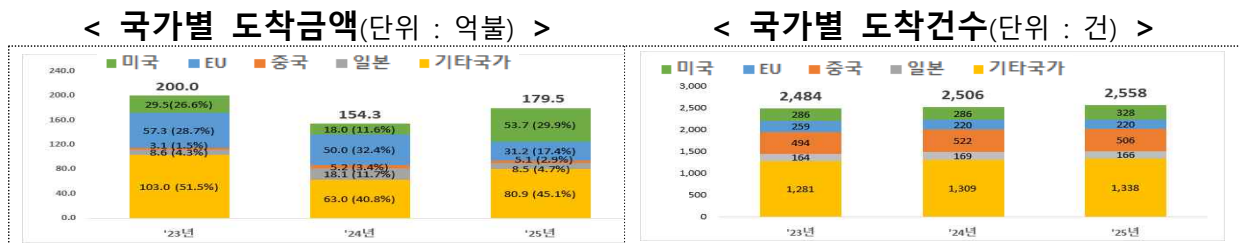
- (감소업종) 금융·보험(52.95억불, △3.4%), 부동산(6.55억불, △20.2%), 여가·스포츠·오락(0.19억불, △46.6%)

□ (건수) 제조업(317건, +3.3%)·서비스업(2,157건, +1.1%)·기타업종(84건, +27.3%) 모두 증가

3. 국가별

(* EU : 영국 제외 27개국)

□ (금액) 미국(53.7억불, +199.1%, 비중 29.9%)·기타국가(80.9억불, +28.4%, 비중 45.1%) 증가, EU(31.2억불, △37.6%, 비중 17.4%)·중국(5.1억불, △1.3%, 비중 2.9%)·일본(8.5억불, △53.2%, 비중 4.7%) 감소



- (미국) 53.7억불(전년比 +199.1%, 비중 29.9%)
 - (유형별) 그린필드(51.8억불, +210.7%), M&A(1.9억불, +49.6%)
 - (업종별) 제조업(35.9억불, +278.8%), 서비스업(17.6억불, +115.3%)
- (EU) 31.2억불(전년比 △37.6%, 비중 17.4%)
 - (유형별) 그린필드(22.8억불, △4.5%), M&A(8.5억불, △67.7%)
 - (업종별) 제조업(10.1억불, △36.4%), 서비스업(18.5억불, △44.1%)
- (중국) 5.1억불(전년比 △1.3%, 비중 2.9%)
 - (유형별) 그린필드(4.9억불, +5.7%), M&A(0.3억불, △52.9%)
 - (업종별) 제조업(1.6억불, △61.7%), 서비스업(3.5억불, +266.2%)
- (일본) 8.5억불(전년比 △53.2%, 비중 4.7%)

- (유형별) 그린필드(8.0억불, △43.5%), M&A(0.5억불, △87.7%)
- (업종별) 제조업(3.8억불, △58.4%), 서비스업(4.6억불, △47.6%)

○ (기타국가) 80.9억불(전년比 +28.4%, 비중 45.1%)

- (유형별) 그린필드(43.8억불, +30.4%), M&A(37.1억불, +26.2%)
- (업종별) 제조업(7.3억불, △22.1%), 서비스업(70.8억불, +58.7%)

□ (건수) 미국(328건, +14.7%)·기타국가(1,338건, +2.2%) 증가, EU(220건, -) 전년 동일, 중국(506건, △3.1%)·일본(166건, △1.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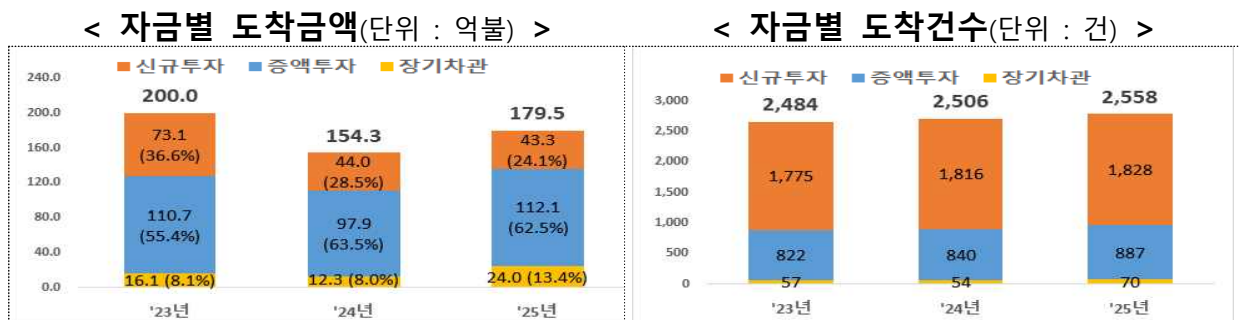
4. 자금별

□ (금액) 증액투자(112.1억불, +14.5%, 비중 62.5%)·장기차관(24.0억불, +94.5%, 비중 13.4%) 증가, 신규투자(43.3억불, △1.5%, 비중 24.1%) 감소

* 신규투자 :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

증액투자 :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장기차관 :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신규투자) 43.3억불(전년比 △1.5%)

- 제조업(3.9억불, △62.1%) 감소, 서비스업(38.8억불, +18.8%) 증가

○ (증액투자) 112.1억불(전년比 +14.5%)

- 제조업(50.0억불, +53.9%), 서비스업(57.9억불, +3.0%) 모두 증가

□ (건수) 신규투자(1,828건, +0.7%), 증액투자(887건, +5.6%) 모두 증가

5. 지역별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비수도권 : 이외 14개 시·도
미정(0.2억불) :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도착한 경우

□ (금액) 수도권(136.3억불, +13.9%, 비중 76.0%)·비수도권(43.0억불, +24.5%, 비중 24.0%)·투자지역 미정(0.2억불, +332.0%, 비중 0.1%) 증가



○ (수도권) 136.3억불(전년비 +13.9%)

- 제조업(33.2억불, +45.8%), 서비스업(100.5억불, +12.4%) 모두 증가

* 서울(107.5억불, +29.1%), 인천(6.8억불 +176.9%), 경기(22.1억불, △35.0%)

○ (非수도권) 43.0억불(전년비 +24.5%)

- 제조업(25.7억불, +0.6%), 서비스업(14.3억불, +132.2%) 모두 증가

* 증가 시·도 : 전남(12.51억불, +540.3%), 충북(9.85억불, +133.5%),
부산(4.51억불, +37.9%), 경북(2.79억불, +2.0%),
세종(1.27억불, +29,463.1%), 경남(1.13억불, +8.7%),
대구(0.89억불, +7.9%), 광주(0.14억불, +64.7%),

* 감소 시·도 : 충남(4.99억불, △30.8%), 대전(2.72억불, △53.9%),
울산(0.94억불, △34.0%), 강원(0.75억불, △64.0%),
전북(0.37억불, △89.8%), 제주(0.14억불, △19.3%),

□ (건수) 수도권(1,926건, △2.0%), 비수도권(511건, △1.0%) 모두 감소